

수비로 증명한 존재감...“‘안방 마님’ 김태군은 철벽 수문장”

포수 부문 ‘종합 RAA’...리그 전체 1위

블로킹 능력 ‘+3.96’ 2위, 수비 범위 기여도 ‘+0.77’ 3위 ‘든든’
“믿고 던져라, 뛰면 잡는다” 탁월한 대처 능력 실점 위험 최소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포수 김태군이 올 시즌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수적으로 증명하며, 팀 안방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

2월 기준, 야구 통계사이트 스탯티즈에 따르면 김태군은 2025시즌 ‘수비 관련 득점 기여도’ 종합 RAA 부문에서 +3.96으로 리그 전체 포수 중 1위에 올라 있다.

이는 평균적인 포수보다 약 4점을 더 막아낸 수치로, 실점 억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RAA는 포수의 수비력을 수치화한 지표로, 폭투와 패스트볼을 막아내는 블로킹 능력(Blk RAA)과 바운드 처리 등 수비 범위 기여도(Range RAA)를 중심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김태군은 블로킹 능력에서 +3.96으로 리그 2위, 수비 범위 기여도에서도 +0.77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이다.

폭투나 패스트볼을 안정적으로 막아내는 정적인 수비 능력은 물론, 낙구 처리, 바운드 불대치, 번트 수비 등 순간 반응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태군은 감점을 드러

내고 있다.

모든 수비항목에서의 고른 성과 덕분에 종합 RAA에서 전체 1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55경기에 출전한 김태군은 팀이 치른 81경기 중 약 68%만 마스크를 썼지만, 그가 나선 경기에서는 안정된 블로킹과 기민한 수비 움직임으로 실점 위험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이러한 활약은 팀 수비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KIA 포수진의 종합 수비 기여도는 +2.98으로 리그 1위.

리그 평균(0.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한, 폭투는 31개로 리그 7번째로 적고, 포일은 단 4개로 최소 수준이다. 경기당 실점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루저지율도 20.2%로 리그 평균(19.3%)을 소폭 웃돌며, 노련한 경기 운영이 엿보인다.

김태군의 출전 비중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비 지표는 그가 안방 수비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출전 경기 수가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포수진의 중심에는 늘 김태군이 있었다.

지난해 KIA가 통산 12번째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 그의 활약은 결정적이었다.



KIA 포수 김태군이 지난달 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홈에 파고드는 에레디아를 저지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블로킹과 리드,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수비는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하는 핵심 요소다.

올 시즌 초반 하위권을 맴돌던 KIA는, 6월 평균자책점 리그 1위 마운드를 앞세워, 월간 승률 1위에 오르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다.

그 중심에 실점을 최소화하며 팀의 균형을 잡아준 김태군은, 마운드 안정의 숨은 버팀목이었다.

/주홍철 기자

조선대·광주여대, 전국대학배구 동반우승 쾌거

창단 첫 대학배구 정상 ‘기쁨 두배’ 최우수 지도자상·MVP 등 휩쓸어

조선대와 광주여대가 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 동반 우승의 쾌거를 거뒀다. 두 팀 모두 전국대학배구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대는 3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3회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남대부 결승전에서 인하대를 세트스코어 3-2(21-25 25-20 25-17 23-25 19-17)로 승리하며 창단 이래 첫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 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대는 예선 A조에서 인하대에 1-3으로 패배한 뒤 경희대(3-1 승)와 홍익대(3-2 승), 중부대(3-0 승)를 연파하며 3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우승은 조선대 배구부가 전국대학배구대회 역사상 처음 결승에 진출해 거둔 첫 우승으로, 꾸준히 이어온 선수단과 지도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한 박성필 조선대 배구감독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큰 대회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역할을 해낸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모든 경기를 팀답게 마무리해 준 덕분에 우승이라는 결과가 따라왔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선대와 광주여대 배구 선수단이 3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3회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각각 남대부와 여대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여대 배구팀 제공〉

조선대는 이번 우승과 함께 개인상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과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인 송수환(2년)이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윤건우(1년)는 리베로상을, 박인우(4년)가 세터상을, 심준호(2년)가 블로킹상을 각각 받았다.

광주여대는 여대부 결승에서 경일대를 3-0(25-23 26-24 32-30)으로 완파하고 창단 첫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예선 B조에서 동의대(3-0 승), 단국대(3-0 승), 경일대(2-3 패)를 상대로 2승 1패를 거둬 조 2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여대부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은 최성우 광주여대 배구감독은 “실업팀에 가지 못한 선수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훈련을 많이 했다. 특히 수비 조직력에 중점을 뒀는데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며 “정말 힘들게 준비한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힘든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광주여대도 개인상을 독식했다. 김나현(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세터상에 손은진(3년)이, 리베로상에 박유리(3년)가, 블로킹상에 김연화(2년)가 각각 선정됐다. /박희중 기자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이 3일 광주시체육회관 접견실에서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광주 소속 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병진 감독, 김지옥, 김승현, 전갑수 회장, 최강인, 손승환, 이재성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대학생 스타들 2025 라인-루르 U대회 금빛 도전

육상 이재성, 유도 김민주·신재원, 양궁 남수현 ‘금메달 1순위’

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이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출전, 메달 도전에 나선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50여개국 8천500여명의 선수가 18개 종목 230개 세부경기(장애인 스포츠 3대3 휠체어 농구 제외)에서 총 232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13개 종목 295명(선수 227, 임원 68명)이 종합 10위권 진입과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참가한다.

광주 소속 선수단은 고병진 감독이 대표팀 임원으로 참가하며, 선수로는 수영 다이빙 김지옥, 최강인, 손승환, 김승현(이상 광주시체육회), 배구 김건우(조선대), 유도 김민주(광주교통공사), 육상 이재성(광주시청) 등 4개 종목 8명이다.

이재성은 금메달 유력 후보다. 이재성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관왕(400m·1600m계주), 2025 김해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100m·200m 2위를 차지했고, 2025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계주 결승에선 38초49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한국 사상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5월 국제유도연맹(IJF)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2025 여자 78kg급에서 금

메달을 차지한 김민주도 금메달 1순위로 꼽힌다.

전남은 양궁 임동일(순천시청), 수영(수구) 진만근(전남체육회), 농구 김현국(경희대) 감독이 임원과 감독으로 참가하며 선수는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유도 신재원(순천시청), 펜싱 김태희(전남도청), 배구 김건우(고흥 출신·OK저축은행)·임성하(고흥 출신·현대캐피탈), 배드민턴 이재은(하순 출신·군산대) 등 7개 종목에서 9명(소속 5, 출신 4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여자 양궁 국가대표 남수현(순천시청)은 금메달에 도전한다. 경희사이버대에 재학 중인 남수현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근 세계유도선수권 혼성단체전 은메달과 2023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여자 국가대표 신재원(순천시청)도 메달이 유력하다.

한편, 한국선수단은 최근 10년간 네 차례 열린 하계U대회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했다.

특히 2015년 광주에서 열린 U대회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위라는 대업을 달성해 스포츠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行

울산 HD에 설욕...부천FC와 홈 앤 어웨이로 결승진출 다툼

광주FC가 울산 HD를 꺾고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광주는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에서 후반 30분 터진 조성권의 헤더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광주는 지난 대회 4강에서 울산에게 당한 패배를 깨끗이 설욕하며 이날 김포를 꺾고 올라온 부천FC와 홈 앤 어웨이(1차전 8월20일, 2차전 8월27일)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 광주가 결승전에 진출하면 역대 최고 성적이다.

아시나와 헤이스를 투톱으로 정예 멤버를 출

전시킨 광주는 초반부터 울산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전반 42분 경기 최대 변수가 발생했다. 아시나가 과감한 돌파로 상대 골문을 향해 나가자, 울산 김영권이 깊숙한 슬라이딩 태클로 저지했고 경고로 받았다. 이미 한 차례 옐로카드를 받았던 김영권은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수적 우위를 안은 광주가 전반 44분 득점과 다름없는 찬스를 만들어 냈다. 아시나가 기브리엘에게 건넨 패스를 곧바로 컷백으로 연결했다. 문전으로 쇄도하던 헤이스가 터치하는



데 성공했으나 제대로 임팩트 되지 않았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경기 주도권을 잡고 여러차례 기회를 살리지 못하다가 후반 30분 마침내 기다리던 선제골이 터졌다. 신창무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성권(사진)이 기가 막히게 돌려내며 골망을 열었다. 후반 종료가 임박하자 한 골이 절실한 울산이 사실상 전원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부상 복귀전을 치른 김경민을 필두로 한 광주의 수비진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내며 1-0으로 경기를 매조지었다.

/박희중 기자